

목포시, 체육 기반시설 대대적 확충

2022년 전국체전 대비 축구센터·야구장 시설 보강 46억여원 2차 추경 편성 장애인체육센터도 건립키로

목포시가 관내 주요 체육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기능보강 등 스포츠 기반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한다.

24일 목포시에 따르면 오는 2022년 전국체전을 대비해 목포국제축구센터 기능보강과 구장 잔디 교체, 목포야구장 기능보강,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 총 46억 2000만원이 2차 추경에 반영됐다.

목포국제축구센터 기능보강에 12억, 축구장과 하키장 등 2개면 인조 잔디 교체에 13억 등 25억이 반영됐고, 목포야구장 기능보강에 11억, 반다비 체육센터(장애인체육센터) 건립 10억 2000만원(1차분)이 세워졌다.

지난 2009년 8월 개장한 목포국제축구센터는 10년이 경과하면서 각종 시설이 노후화돼 시설물 기능 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사업은 주경기장과 인조구장의 전등 160개 교체, 본관 동 옥상 방수, 난간과 시설물 도장, 숙소동 123개실 중 106개실 수리, 우레탄 철거에 초점이 맞춰진 예정이다.

인조 잔디 교체에는 축구구장 7억과 하키구장 6억이 소요된다.

이와 관련 지역 체육계에선 오는 8월 초 동아시아 10개국에 참가하는 U-15 여자축



목포시가 시설비 25억원을 들여 목포국제축구센터 기능보강에 나선다. 거북등처럼 길러져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축구 메인구장 우레탄(왼쪽)과 녹슬고 촌스러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점포.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구대회가 이곳에서 열리는 만큼 유지·보수 공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 선수들을 맞이하기에는 현재 숙소 등의 침대·장판·벽지 등이 상태가 매우 불량해 교체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축구센터 연 이용객이 2015년 76만5388명을 정점으로 2017년 46만 3991명, 2018년 29만9191명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급감하고 있어 시설보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힘이 실리고 있다.

또 목포야구장에 대한 추가 기능보강 사업도 진행된다.

목포야구장은 대양동 958번지 일원 2만 4629㎡에 총 47억8500만원이 투입돼 지난해 3월 개장했다.

하지만 문제는 야구장이 개장된 지 1년

여 밖에 안됐지만 야구협회가 주관하는 대회와 국제대회를 치르기에는 규격이나 시설이 미흡해 야구 동호인들로부터 시설을 보강해야 한다는 민원이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이에 총 사업비 11억을 들여 안전 펜스 76만5388명을 정점으로 2017년 46만 3991명, 2018년 29만9191명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급감하고 있어 시설보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목포종합경기장 인근에 부지 5000㎡ 연면적 2000㎡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목포 반다비 체육센터(장애인 체육센터)도 건립한다.

총 사업비 80억(체육진흥기금 40억, 시비 40억)이 투입돼 오는 2022년 완공될 이

센터에는 다목적 체육관, 체력단련 실, 재활치료를 위한 수영 운동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 센터는 전국체전 개최 이후 이듬해 장애인 체전을 개최해야 하는 규정에 따른 시설로 2023년 전국 장애인체전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다.

2차 추경에 반영된 설계용역비 3억 2000만원과 기 확보된 기금 10억을 포함, 연차 사업으로 올해 13억이 투입된다.

이와 관련 심인섭 목포시 자치행정복지국장은 "전국체전 개최를 계기로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생활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나아가 스포츠 강소도시 목포로 발돋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시 지역 18개 작은 도서관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프로그램 다양화와 운영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설치된 작은 도서관 모습.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제기능 못하는 목포시 작은 도서관

소극적 도서관 정책 탈피 프로그램 다양화 등 필요

목포시가 연간 8억원을 들여 운영 중인 18개소의 작은 도서관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름이 목포시의원은 제348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작은 도서관 대부분이 2층, 3층에 위치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이용실태 분석을 통해 시설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현상은 관련 조례를 무시한 채 설립목적과 기능에 맞지 않게 설치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서마저 없어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현재 목포시 지역 작은 도서관 18곳 중 8개소가 2층에, 2개소는 3층에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의원은 1곳당 168만원의 운영비를 지원 받아 A작은 도서관은 연간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반면 B작은 도서

관은 96개를 운영해 무려 4배 차이가 나고, 프로그램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서관 이용객이 요구하는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도서관 구입비도 연간 8000만원에 불과해 목포시 인구 대비 턱무늬없이 적게 책정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는 목포시의 도서관 정책이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프로그램 다양화와 운영시스템 개선을 제시했다. 특히 이 의원은 관내 목포시립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영어도서관, 18개 작은 도서관 등을 통합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답변에 나선 김중식 목포시장은 "접근성과 공간 구조면에서 불편해 이용객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무엇보다 도서관의 패턴이 바뀌고 있는데 관심부족이 아닐까"면서 "운영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트렌드에 맞는 정책이 수립되도록 전담부서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항 갈치낚시 행사 사전협의회 열고 논의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장기표)은 지난 20일 목포해수청 대회의실에서 올해 목포항 갈치낚시 행사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사전협의회를 열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이날 목포해경과 지자체 관계자, 어업인 대표 등이 참석한 협의회를 갖고 작년 행사 운영결과에 따른 민원제기 사항 및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 행사기간 및 행사구역 확정, 허가조건 개정 여부 등 행사 계획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목포항 갈치낚시 행사는 8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다.

갈치낚시 행사는 목포항 내 항만구역으로 선박의 안전 통행에 위해 조업이 금지된 구역이지만 어업인 등의 생업유지 및 소득증대를 위해 해경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2015년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인력거에 물지게까지... 1910~30년대 목포 재현 '이색 패션쇼' 눈길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의 중심지인 갑자옥 모자점 일원에서 지난 22일 이색적이고 특이한 패션쇼가 펼쳐졌다.

근대 개항기 무렵의 목포를 배경으로 한 이날 패션쇼에는 인력거, 수레, 물지게 등을 소품으로 1910~30년대를 풍미한 서민들의 의상을 재현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이날 패션쇼에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현태탄의 비극 김우진과 윤심덕, 권번 출신 기생 모선아, 물지게꾼 옥단아, 아난영 등의 인물들을 희화한 의상들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패션쇼와 함께 가면, 기념핀 만들기, 나만의 머그잔 만들기 등 체험 행사도 더해져 흥을 돋웠다.

한편 극단 갯돌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생생문화제 일환으로 진행된 '목포 개항장 시간여행' 프로그램으로, 2회 차 행사는 오는 10월에 진행된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의 중심지인 갑자옥 모자점 일원에서 지난 22일 인력거, 수레, 물지게 등 소품을 이용해 서민들의 의상을 재현한 이색적이고 특이한 패션쇼가 열렸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위해 '시민신탁제' 도입을"

이형완 시의원 제안

목포시가 추진 중인 1897 개항문화거리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신탁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형완(사진) 목포시의원은 제 348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목포형 프로세서 도입이 필요하며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센터, 지역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제안공모 방식'의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도시재생에 관한 주요사항 결정, 계획변경 등을 위해서 목포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 행

정협의회' 구성을 역설했다.

지역청년, 주민, 주민협의체, 지역전문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는 용역사를 리드해 목포의 특성이 잘 나타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또 그는 최근 들어 목포 근대역사문화거리 일대가 이산화되면서 부동산 매매가 상승으로 주요거점시설에 대한 매입이 지체돼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데 대한 대안으로 '시민신탁' 제도를 도입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oticon PEOPLE FIRST

115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 보청기

광주지사 3주년 특별행사
062-364-8800

- 부담 없는 무료 청력 테스트
- 30일간 보청기 무료 테스트
- 배터리 1+1 추가 증정
- 청각 장애인 정부 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홈케어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고객님들을 위한
무료 가정방문 출장 서비스

오시는 길
화정역 4번 출구 / 능성역 4번 출구에서 100m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5 1층 102호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지붕공사
슬라브 옥상, 주택, 상가
원룸, 데스리, 한옥 등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최신품법의 특수 방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